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5월 11일 목요일 (음 4월 16일) 제180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문재인 대통령 취임... 새 시대 개막

“광화문 시대, 국민 가까이 있겠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닌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 될 것”

“주요 사안, 언론에 직접 브리핑 권력기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 국민들의 지지·성원에 보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광화문시대 대통령이 돼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선서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다”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겠다”며 “퇴근길에는 시장에 둘러 미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다”며 “한편으로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며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다 못지않게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다. 문재인 정부 하에선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내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며 “국민과 역사가 평가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9분에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참석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나와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국립현충원을 참배

했다.

이후 야당 대표들과 만나 대화, 소통, 타협을 약속하고 국정 협력을 요청했다. /한재용 기자



이낙연 내정자 서훈 내정자 임종석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실장

국무총리에 이낙연 지사 내정

문 대통령, 국정원장에 서훈 내정·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당선 하루 만에 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뒤 오후 이 지사에 대한 총리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지명 및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영훈 경호실장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 따르면 오 래전부터 이 지사를 초대 총리 후보자로 낙점했지만 대선 유세일정으로 인해 며칠 전에서야 이 지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낙연 지사의 총리 내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탕평 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 출신의 이 지사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까지 모두 끌어안은 대통합을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부합한 인사라는 설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대통합·대탕평 인사’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비(非)영남 출신 인사 가운데 첫 총리 후보로 염두에 둔 인사가 있다며 “호남 총리론”을 시사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를 거쳐 16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해 4선 의원을

지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역임했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지사가 총리를 맡게 될 경우 전남 지사직은 사퇴해야 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에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했다.

청와대 측은 “국정원이 해외와 북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이길 최적의 인물로,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순수 정보기관 재탄생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 및 평화를 하루속히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임종석(51) 전 의원이 내정됐다.

재선의원 출신의 임 전 의원은 전 대법 의장 출신의 대표적 '86그룹(80년대 학번·80년대생) 인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무부시장을 지내며 ‘박원순 맨’으로 분류됐지만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의 삼고초려로 한배를 타게 됐다.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청와대 측은 “여야를 막론한 폭넓은 정치권 인맥으로 임 실장이 청와대와 국회 사이 대화와 소통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재용 기자

문 시진핑, 문 대통령에 축전... “갈등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당선을 축하하면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축전에서 “한중 양국은 중요한 이웃국”이라고 강조하면서 “수교 25년 동안 공동 노력으로 양국 관계는 깊

이 있고 전면적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나는 시종일관 한국과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면서 “중국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뉴시스

매일 INDEX

- 3면 - 새 대통령 당선에 공식사회 활기
- 4면 - 청탁금지법 위반 도내 첫 사례
- 5면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
- 6면 - 휴대폰 기본료 사라지나

여름방학이나 가을까?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산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전담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폭의 수채화를 담은 넉넉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붕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풍경이 절정에 이릅니다.

임실군